

구례군,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 운영



구례군은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에 대응하고 관내 농산물의 홍보효과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 2층에 설치한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와서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스튜디오는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 2층에 설치 모바일 쇼핑 대응·관내 농산물 홍보 효과 ↑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였으나 청년농부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모든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에는 조명기구, 촬영용 카메라 등 전문적인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들어 농

산물을 포함한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우리군 농식품의 판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스튜디오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튜디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780-2077)로 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주민 안전 파수꾼 '화순군 통합관제센터'

4시간 넘는 CCTV 관제로 길 잃은 지적장애인 발견 도움

화순군은 군 통합관제센터가 화순 화순경찰서 112 상황실로부터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4월28일 밤 화순경찰서 112 상황실로부터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즉시 통합관제센터 야간근무 요원 전원 CCTV 확인에 나섰고 4시간 30분만에 만연산 토성가든 앞에 해당 실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해당 실종자는 집을 나간 뒤 방향 감각을 잃고 6시간 넘게 헤매다 관제센터 발견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실종자 발견에는 화순군 통합관제센터가 최근 도입한 지능형 영상분석과 자동 추적 얼굴감지 시스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에도 차량털이범 범행 현장 적발, 10대 무면허 운전 차량 발견, 장기 미체포 범인 검거, 가출 후 실종사건 해결 등에 협조하며 주민들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차량번호 및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보강해 안전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발대식 개최

하사마을 입구 잡초 등 제거하고 꽃잔디 등 식재 계획

구례군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발대식을 개최하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4월 29일, 구례군은 사업대상 마을인 하사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다시 한 번 사업의 지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하사마을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 입구에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잡초 등을 제거하고 꽃잔디와 꽃을 식재할 계획이다. 마을 입구 환경 정비를 통해 마을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꽃밭 조성, 마을 대표 벽화 그리

기, 우체통 만들기 등이 있다. 특히 군이 아닌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대식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마을별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발대식 개최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주민 화합을 통해 적극



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무엇보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사업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친환경 쌀, 서울 성동구 학교 책임진다

다음달부터 2년간 41개 초·중·고교 지원

담양군의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오는 6월부터 2년 간 서울시 성동구 학교 밥상을 책임진다.

담양군은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서울시 성동구 학교급식으로 선정되어 6월부터 2년간 41개 초·중·고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내 초·중·고 41개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밥맛 품평회 등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담양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600여 톤의 쌀을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내 8개 농협이 참여해 설립된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 주체로 봉산면 신학리에 120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원을 겸비한 최첨단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담양 쌀의 경쟁력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 청정 자연과 영상강 시원의 깨끗한 수질은 친환경농업의 최대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농촌진흥청, 플럼코트 유통활성화 위한 지원 협의회 개최

"냉해 경감·수확 적기 적립 등 해결방안 마련할 것"

지난 4월 28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곡성 플럼코트 재배농가, 유통업체, 연구기관에서 참석해 플럼코트 유통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GS Fresh Mall 이은선 팀장은 "아직은 생소한 플럼코트를 우리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곡성 플럼코트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플럼코트 재배농가 김병식 씨는 "수확 시기 적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가 품질 좋은 플럼코트

를 맛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연구관은 "플럼코트 유통 및 수확시기 적립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다. 농업인과 유통인의 의견을 잘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조현자 소장은 "올해 냉해로 당초 계획 대비 수확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해 경감, 수확 시기 적립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관련 기관 등과 협의회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플럼코트의 재배규모는 8ha로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시장에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플럼코트가 초여름 과일로 시장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